

대한불자가수회 15주년, 12월 8일 창립기념법회 및 전국불자노래자랑 열어

열다섯, 성인이라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어린이이기에 많이 성숙한 청소년. 대한불자가수회의 현 위치다. 불자 가수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봉사단체 대한불자가수회가 올해의 결실을 12월 8일 창립기념법회와 불자노래자랑으로 마무리 지었다. 15주년 기념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이 법어를 하고 불교방송 흥송기 사장이 축사를 하며 대한불자가수회의 생일을 축하했다.

다섯 번째를 맞는 전국불자노래자랑 결선대회는 총 12명이 진출해 불보상 법보상 승보상 보현상 정진상의 다섯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1-4회 노래자랑 수상자들도 최근 새 음반을 내고 방송활동에 서서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요즘 대한불자가수회는 한동인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활동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 초에는 사무실을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다보빌딩으로 옮기고 소년소녀가장돕기 일일집짓기를 개최했는가

봉사 통해 불심 다지고 음성공양으로 포교 나서



대한불자가수회 김흥국 회장이 창립 15주년 기념법회후 첫번째 축하무대를 '59년 왕심리'로 장식했다.

올 1월 대구에 첫 지부 설립 불우이웃돕기 등 활동 다양 김흥국 회장 "많은 영역의 불자 연예인들 동참" 당부

하면 1월에는 첫 지부가 만들어졌다. 지방에서 처음으로 대구에 대한불자가수회 지부가 설립된 것. 원로가수 송시향씨가 지부장이 되기도 했다.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는 매달 정기법회를 갖고 불자로서의 자질과 신심을 높인다는 계획 아래 청소년, 어려운 이웃 등을 위한 무료공연 등 지역별 포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음성포교 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불자가수회는 188명의 불자 가수들이 모여 음성공양과 자원봉사를 목표로 창립했다. 가요계 개최, 전국 사찰 순회공연, 신인 음성포교사 선발, 군부대와 복지시설 위문공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의 다양한 음성공양 활동을 펼쳐왔다.

불자가수회를 이끌어온 중심에는 김흥국씨가 있다. 대한민국 10대 가수 김흥국씨는 15년 동안 창립 회장에 이어 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한불자가수회를 이끌어 왔다. 노래와 불교 그리고 축구가 전부인 그는 불자가수 1명이 어지간한 포교사 10명보다 낫다는 생각 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부처님 정법 수호, 불음 포교 등을 기저로 창립한 대한불자가수회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연예계 대표적인 신형단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회원 스스로 불자가수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대한불자가수회 회원들은 말한다.

원로 불자가수들은 고문으로 포진해 있다. 명국환, 김사향, 남강수, 김환선 등이 그들이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무대를 갈망한다.

남강수씨는 한 스니퍼의 약속으로 채식만 하고 있다. 최근 건강이 안 좋아져 주변에서 육식을 다시 하라



남강수 김환선 김사향 명국환 진승남 김흥국 선우영녀 오은정 이현주

는 권유에도 불자로서 스니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며 채식에 고집하며 마음과 몸을 다스리고 있다. 김사향씨도 여전히 산사를 다니며 자선음악회 무대에서 열정을 이어가고 있다. 평생 불자로 살아왔기에 삶의 마지막 막을 부처님의 품안에서 봉사로 나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불자가수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만(근)자 목걸이로 대변되는 가수 김민중씨는 능인선원 신도로 수행활동을 이어왔다. 또 한 명의 만자 목걸이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이은하씨다. 한시도 만자 목걸이를 목에서 떼어놓지 않기에 김흥국 회장은 고마움과 애정을 동시에 표현한다.

특별지원위원단은 탤런트 개그맨 MC 운동선수 등으로 구성됐다. 탤런트 선우영녀 여운계 나문희 고두선 전원주 서우미, 방송인 송혜 엄영란 이상벽 김병조, 개그맨 배일집 오재미 등 연예인과 마라톤 해설자 황영조, 축구선수 박지성 김남일 이동국 설기현 등이 특별지원위원단을 이루고 있다.

김흥국 회장은 "대한불자가수회가 좀더 활기차고 힘 있게 운영된다면 보다 많은 영역의 연예인들이 함께 봉사하며 불심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대한불자가수회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불교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불교방송, 인터넷 동영상 '붐(BOOM)' 서비스 실시

컴퓨터 없애면 있다면 이제 불교방송을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다. 불교방송(사장 흥송기)이 인터넷 영상 서비스 붐(BOOM)을 12월 7일 오픈했다.

불교방송 인터넷 라디오의 새 이름 붐(BOOM)은 'Buddhist Ocean Of Multimedia'의 약자.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불교의 붐을 일으키겠다는 의미라고 불교방송 측은 설명한다.

KBS의 퐁라디오, MBC의 미니라디오 등 공중파 라디오 방송의 보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현재 네티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종교계 방송국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방송이 보는 라디오에 도전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영상과 소리의 결합을 목적으로 붐을 개발했다.

붐을 통해 생방송 보기를 제공하며 지나간 영상 프로그램은 VOD 서비스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연보내기 코너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 붐이 가진 장점이다. 현재 다운 받을 수 있는 버전은 BOOM 1.0. 불교방송 홈페이지(www.bbsfm.c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이와관련 불교방송은 내년 3월까지 붐 전용 홈페이지 개설과 불교관련 커뮤니티 블로그 등과 연계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4월 이후에는 다양한 콘텐츠 연계 서비스를 비롯해 붐 플레이어의 다양한 스킨 제공등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나갈 계획이다.



박원식 총괄기획장은 "불교방송이 그동안 영상 산업 진출을 목표로 영상팀을 신설하고 영상 콘텐츠를 줄곧 준비해 왔다"며 "이번 '붐'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통해 불교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VOD로 쉽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13일 오전 11시 마포 홀리데이인서울에서 불교방송 이사회가 열렸다. 2007년도 예산심사와 함께 12월로 임기가 끝나는 이사장 도후 스님의 후임 이사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김지연 기자

능인선원 신세대 감각의 찬불가 선보여

'좋은벗풍경소리'도 스물세 번째 창작 찬불동요 발표

이런들을 위한 찬불가, 어린이들을 위한 찬불동요, 두 개의 CD가 나란히 불자들 곁으로 찾아왔다. 능인선원 합창단이 마련한 찬불가 음반은 지난 5월부터 기획된 작품. 작곡가이자 능인선원 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는 이진구씨가 국악풍을 탈피한 신세대 감각의 찬불가들을 선보인다.

이번 신(新) 찬불가 음반에는 2005년 창작 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내 마음의 부처'를 비롯해 지난 8월 대만에서 열린 제3회 세계 창작찬불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자유 평화 행복' '영감을 하루 같이' '보련목탑보람' '산사의 저녁' '기도를 하자' '회합의 노래' '밀레니엄 아리랑' 등이 담겼다.

음반 발표와 더불어 12월 16일 능인선원 대법당에서 음반제작 기념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회에서는 50여명의 능인선원 합창단이 음반에 수록된 11곡에 다섯 곡을 추가해 모두 16곡을 음성공양할 예정이다. 작곡 편곡을 모두 무상 보시한 작곡가 이진구씨

를 비롯해 능인선원 합창단은 CD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쓸 계획이다.

불교계 창작 찬불동요의 생산지 좋은 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스물세 번째 창작 찬불동요 CD를 내놓았다.

이번 앨범에는 '추운 날에는' '웃는 얼굴' '차마시기' '착한아이 예쁜아이' '부처님이 나는 좋아' '부처님을 사랑해' '아침' '꿈을 키우자' '봄이 오는 트랙에서' 등 노래 9곡과 반주음악 9곡 등 총 18곡의 찬불동요가 담겼다.

대법 스님이 '웃는 얼굴' '차마시기'를 작사했고 최미선 정유탁 최봉중씨 등은 '추운 날에는' '착한아이 예쁜아이' '부처님이 나는 좋아' 등을 작사 작곡했다.

풍경소리 23집에서는 우수지 이선희 임지는 문유경 김지현 최미정 이도림 이민영 등이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불동요를 불렀다. 올해로 창립 11주년을 맞는 좋은벗풍경소리는 그동안 400여 찬불가요·동요를 보급해 왔다. 김지연 기자

Advertisement for Shinil's 'Onpunggi' (온풍기) heater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heater, a list of benefits like 'quiet operation' and 'energy savi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nationwide promotion.

Advertisement for 'Ommani Banmeohom' (음마니반메흠) handbags. It shows several colorful handbags and promotes them as 'gifts for wives' and 'practical gifts'.